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31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과 평가전에 이어 6월9일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marine007

최강희 “박주영-에닝요 없어도 자신”

축구대표팀 스위스 출국

31일 스페인전·내달9일 최종예선 돌입
“박주영·에닝요 제외 대비 플랜 짜났다
훌륭한 자원 많고 선수들 의욕도 크다”

“비운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은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9명의 태극전사(이정수 조병국 김두현 조용형 염기훈 구자철 기성용 남태희 지동원)와 함께 출정식을 갖고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을 향한 대장정에 올랐다. 대표팀은 31일(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스페인과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달 9일 카타르와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원정)을 갖는다.



축구대표팀 최강희 감독(가운데)이 출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최강희호의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박주영의 병역 연기 및 에닝요의 특별귀화 논란이 터졌다. 여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최 감독의 고심이 이어졌다. 17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박주영을 제외했다. 특별귀화

추진이 어려워진 에닝요의 자리는 애당초 없었다. 최 감독은 “박주영과 에닝요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워 놓았다. 선발한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을 거치면서 마음을 접은 것이다. 최 감독은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처

음에 푸닥거리를 하는 것이 낫다. 논란을 거치면서 맷집이 세졌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24일 출국 전 “2명(박주영, 에닝요)은 이제 있었다. 26명의 선수로 스페인전과 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 등 총 3경기를 치를 것이다. 대표팀에는 좋은 자원들이 많다. 선수들의 의욕도 크다”고 전했다.

26명의 대표팀 명단에 이동국, 박태환, 이정수 등 베테랑들과 구자철, 기성용, 김보경, 지동원 등 젊은 파들이 섞여 있다. 경험과 패기를 두루 섞어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최 감독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다. (카타르전은) 환경 등의 악조건을 딛고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만 잘 하면 첫 경기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김자영, 꺾발남 퍼트 통했다

김대섭에게 전수받은 퍼트 노하우 적용
두산매치플레이 64강 완승…우승 노려



차 완승을 거뒀다.

김대섭(31)에게 전수받은 퍼트 덕을 톡톡히 봤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김대섭은 남자프로골프 무대에서 퍼트의 달인으로 손꼽힌다.

천 라레나 골프장(파72·6496야드)에서 열린 두산매치플레이(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첫날 64강전에서 조아람(27·하이원)을 상대로 3홀 남기고 4홀(4&3)

다리를 넓게 벌리는 일명 ‘꺾발남 퍼트’로 유명하다. 김자영은 2주 전 김대섭을 만났다. 그때 퍼트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평소 퍼트 할 때 머리가 공보다 뒤쪽에 있어 오르막 퍼트 때 거리 감각이 떨어지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던 그는 김대섭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고쳤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자영은 “(우리투자증권챔피언십) 1라운드를 2언더파로 끝내고 대섭 오빠

에게 ‘저 모처럼 잘 쳤어요’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로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7언더파를 몰아친 거예요. 그 덕분에 우승까지 하게 됐고요”라며 우승의 공을 김대섭에게 돌렸다.

한편 이날 유소연(22·한화)을 제외한 역대 우승자가 모두 탈락했다. 김보경(2008년)은 이은빈(19·고려신용)에게 1홀 차 무릎 꿇었고, 이정민(2010년)과 양수진(2011년)도 각각 김수연(18), 김초희(20)에게 패했다.

춘천 | 주영호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女대표팀, 日 꺾고 배드민턴팀선수권 결승행
성지현 등 기량 쑥…“2년전 그날처럼 이긴다”

2년 전 말레이시아 팔라렐푸르에서 한국여자배드민턴은 12년간 세계단체선수권(여 우버컵·남 토마스컵)을 지배했던 중국을 무너트렸다. 그리고 2012년 한국은 정상 탈환을 위해 이를 악문 중국이 안방 우한에서 개최한 세계 단체선수권에서 또 한번 만리장성 앞에 당당히 섰다. 우버컵 2연패 도전이다.

배드민턴여자대표팀은 24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우버컵 준결승에서 일본을 3-0으로 완파했다. 개최국 중국이 훈련시간을 이른 오전에 배치하는 등 디펜딩 챔피언 한국을 집중 견제했지만 8강에서 대만, 4강에서 일본 등 난적을 잇달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은 26일 오후 2시(한국시간) 펼쳐진다.

여자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7시 대만과 8강전을 치렀다. 5단식까지 접전이 이어져 24일 오전 12시42분 예야 경기가 끝났다. 5시간 42분의 혈전을 치르고 불과 12시간여 만에 다시 코트에 섰지만 셔틀콕 낭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1단식에서 성지현(한국체대·세계랭킹 11위)은 사토 사야카(세계랭킹 15위)를 상대로 1세트 초반 접전을 벌였지만 21-15로 따냈고, 2세트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21-10으로 이겨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했다. 2복식에선 김민정(전북은행)-하정은(대교농고)이 세계랭킹 3위)이 후지 미즈키-가키와 레이카(세계랭킹 4위)를 2-1(21-13 17-21 21-14)로 꺾었다. 이어 3단식의 배연주(KGC·세계랭킹 13위)도 히로세 에리코(세계랭킹 24위)를 2-0(21-15 21-17)으로 눌러 결승 진출이 확정됐다.

2년 전 우승 주역인 이효정과 이경은이 은퇴했지만 성지현 등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켜 다시 결승에 진출한 성한국 대표팀 감독은 중국 취재진 앞에서 “중국은 여전히 최정상급이지만 우리 선수들 모두 한번씩 이겨본 경험이 있다. 그날이 다시 이번 결승전이 될 수 있다”고 자자감을 보였다. 우한(중국)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박상오, SK로 트레이드…신기성 현역 은퇴 선언

프로농구 KT는 24일 FA 박상오와 재계약한 뒤 곧바로 SK로 트레이드했다. KT는 그 대신 올 10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SK로부터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받고 2라운드 지명권을 건네주기로 했다. 2010~2011시즌 MVP 박상오는 당초 KT와 1차 협상에서 4억원의 구단제시액에 맞서 4억 5000만원을 주장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24일 계약기간 4년, 연봉 3억2000만원(인센티브 4000만원 포함)에 사인한 뒤 SK로 등지를 옮겼다. 원소속팀 전자랜드와 재계약에 실패한 가드 신기성은 결국 현역에서 은퇴기로 했다.

필라델피아 NBA 4강PO 6차전 보스턴 제압

필라델피아가 24일(한국시간)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린 2011~2012 미국프로농구(NBA) 동부 콘퍼런스 4강 플레이오프(PO·7전4승제) 6차전 홈경기에서 보스턴을 82-75로 누르고 시리즈 전적 3승3패를 만들었다.

2012년 名品 초소형시계캠코더 출시!

삼성 8GB 대용량 최고화질 · 방수 · 동작 감지 기능
찰각소리 없이 사진 24,000장, 동영상 촬영 · 동시 녹음

그 동안 사이즈 한계를 극복한 초소형 손목시계 카메라 직업상 비밀녹화, 녹음이 필요한 사람이나 정부의 포상금제도로 인하여 환경오염, 선거운동, 쓰레기 무단투기, 폐소각현장 등 각종불법 사례를 은밀히 촬영하는 제보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최신형 스파이시계를 선보였다. 얼핏 보기에는 영락없이 보통 손목시계지만 녹음은 기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은 무려 24,000장을 촬영 보관할 수 있다.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남이 모르게 녹음, 촬영을 할 때 안심맞춤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A/S발생 시 신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월 29,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전액 선포인트 혜택을 볼 수 있다. USB 케이블, 충전기등을 사은품으로 준다.

문의 02-2677-2571



구입문의 : 080-080-1522

30만원대 기능 갖춘 최신헌
블랙박스
행사과격가-198,000→ 99,000원
국산정품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
1억원 배상 보장가입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집에서는 CCTV로!!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현대오토웍스(주)가 블랙박스 “오토아이존”에 이어, 보급형, 애니로드블랙을 출시해 좋은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전국백화점 50개 매장에 입점될 정도로 성능, 디자인,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고급차에도 잘 어울리는 심플함과 설치후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작고 슬림한 디자인만큼이나 최적의 영상화질을 제공한다. 차량에서는 블랙박스, 가정에서는 CCTV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징은 네비게이션에 연동되고, 밤에도 뚜렷한 영상이 제공되는 VGA의 우수한 화질, 동급최대의 화각확보, 3축G센서 내장, 사고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도 녹화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2중저장장치가 돋보이고, 장기 주차중 녹화시에도 배터리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연결케이블은 옵션으로 채택한 이 제품은 시중가 198,000원인 것을 500대 한정판 특별행사가 99,000원에 공급하고, 엔진오일교환권 (20,000원)도 무료제공한다. 현대오토웍스(주)는 접수후 24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A/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A/S는 기본적으로 1년무상으로 제공된다.

www.hd-autoworks.co.kr
autoworks 현대오토웍스(주) 대표전화 1544-3201
※기업체 및 단체주문 문의 : 070-7649-2383

독신남들에게 강추!!!
친구같이 연인처럼 같이 해줄!!
매력녀 **안나!!**
보관하기 편리해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제품
남자라면 한번쯤 갖고 싶은 매력녀
그녀를 소유하면, 활력이 솟아납니다.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제조업체 **경원에서 솔로탈출**, 외로움을 달래줄 기회를 드립니다.
(꾸준한 연구,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가방, 펌프, 러브젤7개, 질2개, 피우어, 콘돔, 바이브레이션(건전지), 섹시팬티
출시기념으로
(피워링, 핸드잡, 진동자랑외 더 많은 선물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70-4103-2818
PHONE : 010-3412-3044
입금계좌 302-0124-3415-71 (농협 김지호) 통신판매0464호